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왜코뮤니즘이아닌상호주의인가?

왜코뮤니즘이아닌상호주의인가?
2021 년 8 월 11 일

Resilience.org, 아카이브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 년 8 월 11 일

차례

상호주의란무엇인가? 3
이것이진짜사회주의인가? 4
그렇다면왜코뮌주의가아닌상호주의인가? 5
계획경제와국가 6

현대경제에서코뮌주의는계획경제를필연적으로요구합니다. 이는이름뿐이아니라고해도사실상국가를의미합니다. 그리고계획경제를갖춘국가사회주의는역사상시도될때마다대다수의사람에게는희소성 (부족) 을, 정당엘리트에게는특권을가져왔습니다. 이는단순한부패의문제가아닙니다. 경제계획은정확히맞추기극도로어렵고, 아주작은오류도예측불가능한연쇄적실패를일으켜대규모기아를초래할수있기때문입니다.

아나키즘내부에서도이문제는심각합니다. 예를들어아나키즘적생디칼리즘은경제계획을노동자평의회에맡깁니다. 그러나경제를계획하고“누가언제무엇을어디서얼마나받는지”를결정하는노동자평의회는금방기술관료제 (테크노크라시, technocracy) 가됩니다. 이는자유민주주의국가보다도책임성이떨어지는경제독재가되기쉽습니다. 사회전체가그들의결정을견제하거나질문할통로가없기때문입니다.

즉, 유한한세계에서코뮌주의를확장하려면중앙계획이필요하고, 중앙계획은결국새로운국가를만들어경제독재를구축한다는의미입니다. 그렇기때문에코뮌주의는본질적으로권위주의적입니다. 따라서무역, 통화, 시장이반드시존재하는세계—그리고이는역사속모든‘공산주의국가’에서도항상존재했습니다—에서국가없는사회주의를원한다면, 실제가능한선택지는상호주의뿐입니다. 이것이내가수십년의연구끝에점차아나키즘적코뮌주의와생디칼리즘을떠나상호주의자가된이유입니다.

긴어렵지만, 선출된지도자나왕, 국가간의관계를따라가는것은쉽습니다. 즉, 정부의정당성 (legitimacy) 이라는개념은일종의사회적통화입니다. 사람들이세금과의무라는유지비용을감수할가치가있다고느낄때, 그정부는“정당하다”고여겨집니다.

사회적통화가불필요해지는유일한상황은완전한탈희소 (post-scarcity) 사회입니다. 크로포트킨과초기아나키즘적코뮌주의자들은우리가빠르게탈희소사회로향하고있다고믿었습니다. 《빵의쟁취 (The Conquest of Bread)》에서크로포트킨은탈희소에도달하면국가없는코뮌주의가자연스럽게실현될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 크로포트킨은매우훌륭한사상가였고그의많은주장들은옳았습니다. 특히상호부조가진화과정에끼치는영향에대한그의연구는꼭읽어봐야하는글들중하나입니다. 하지만그가탈희소사회가실제로가능하다고본점에서는틀렸습니다. 우리는유한한행성에살고있기때문에희소성을피할수없습니다. 특히생물종은풍요가생기면다시희소성이생길때까지번식하는경향이있습니다. 녹색혁명이후인구의증가를보십시오. 그러니완전한탈희소는불가능합니다. 그리고희소성이존재하는순간, 교환이필요합니다. 교환, 즉, 거래가있는순간, 시장이생깁니다. 시장이존재하면통화가필요합니다. 그통화가국가가발행한화폐일필요는없지만, 그것이조개껍데기일지라도통화는반드시존재합니다. 이것이역사상모든계획경제시도에서공식적이든비공식적이든반드시시장이등장했던이유입니다.

계획경제와국가

당신이기차공장에서일한다고상상해봅시다. 공장에서기차의모든부품을직접생산하지않는다면, 다른제조업체로부터부품을공급받아야합니다. 이런공급망은길고복잡해집니다. 상호주의에서는수요와공급이이런문제를해결합니다. 하지만코뮌주의에서는누군가가이모든과정을하나하나정교하게계획해야합니다. 그리고아나키즘적코뮌주의체제처럼수요와공급이존재하지않아누구든원하는것을가져갈수있는상황이라면, 취미로기차와무관한일을하는사람이공급업체에들러중요한부품을잔뜩가져가버릴수도있습니다. 그러면공장은멈춰서고, 기차가납품되지않아도시전체가멈추게됩니다.

산업사회는“누가언제무엇을가져가는지”를통제하는메커니즘없이는유지될수없습니다.

이문제는크로포트킨이글을쓰던당시에는문제가되지않았습니다. 그시기에는장인 (artisan) 중심의경제였고대부분의생산이한작업장에서이루어졌기때문입니다. 하지만오늘날에는핵심적인문제입니다.

역자주: 글쓴이가제시한권위주의적국가권력의특징이나아나키즘적코뮤니즘에대한관점은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는아나키스트들의시각과는꽤큰차이가있으며, 다소오해가섞여있습니다. 실제로아나키즘적코뮌주의자들은희소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양한메커니즘을개발하고제시해왔습니다. 그럼에도이글은상호주의아나키즘의특성을소개할수있는좋은글이라고생각해서올립니다. 보다더자세한내용은《An Anarchist FAQ》의 I 섹션이나아나키즘적-코뮤니즘관련다른자료들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많은사람들은상호주의 (Mutualism) 가무엇인지[1], 또, 왜자본주의와국가에반대하는사람들이코뮌주의나민주사회주의가아닌상호주의를선택하는지잘알지못합니다. 훌륭한자료들이많지만, 이글에서는가장기본적인내용을높은수준에서설명하려고합니다. 그렇다면상호주의란무엇일까요? 기대하십시오.

상호주의란무엇인가?

상호주의는급진적으로분권화된시장기반사회주의의한형태입니다. 이상호주의경제에서는대기업이존재하지않으며, 모든사업체는그곳에서일을하는사람들 (노동자들) 이집단적으로소유합니다. 물, 전기, 인터넷등공공시설은그시설을직접사용하는지역공동체가소유합니다. 그리고물론, 혼자일하며일인공동체에서살고싶은사람은자유롭게그렇게할수있습니다.

모든사기업과공공시설은노동자들이협력하여민주적으로운영됩니다. 이는오늘날노동자가소유한수백만협동조합에서이미실행중인방식입니다. 공동체가“무엇을할지”를정하고, 노동자들은“어떻게할지”를결정합니다. 실제로미국상호주의자가초기노동자소유협동조합을도입했으며, 이협동조합이얻어낸높은임금과개선된노동조건과지역사회로환원은상호주의실천의가치를증명합니다. 수백만명의노동자가이유산덕분에더나은삶을살고있습니다.

상호주의에는사장도, 주주도없기때문에, 노동자들은스스로가생산한가치를완전히보상받을수있습니다. 코널리 (Connolly) 가말했듯, “이윤은노동계급에게지급되지않은임금이다.”상호주의에서는자본가들에의한체계적잉여가치착취를끝낼수있습니다.

자본가에게의존해새사업을시작하는데드는자본을마련하지않고, 상호주의자는대신전통적으로신용조합에의존해왔습니다. 실제로프루동 (Proudhon) 이최초의신용조합을고안했고, 후대상호주의자들이그아이디어를발전시켰습

[1] ‘상호주의’라는단어는두생물이상호작용하여서로에게이익을주는진화생물학용어이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매우적절한용법이라고생각합니다.

니다. 북미 (상호주의가특히강했던지역) 에서신용조합이유독많이자리잡은것도상호주의의유산중하나입니다. 가장규모가큰신용조합들중많은곳이노동조합이소유하고있는것도우연이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현대신용조합과달리, 원래상호주의적아이디어는노동자와장인이자금을함께모아새로운노동자소유기업의창업을지원하거나기존기업들을매입해협동조합으로전환하는것이었습니다. 이런방식으로초기상호주의자들은자본가들에게서생산수단을말그대로인수하여자본가들을대체하길희망했습니다. 총을쏘거나피한방울흘릴필요없이말입니다.

모든형태의자유지상주의적사회주의 (libertarian socialism) 와마찬가지로, 상호주의경제에는기술을저작권으로속박하는체제가존재하지않습니다. 토지와천연자원들처럼, 인류가축적해온지식역시크로포트킨 (Kropotkin) 이말한"인류의공동유산 (common heritage of humanity)"이며, 모든사람에게속합니다. 본질적으로모든기술은오픈소스 (open source) 인것입니다.

상호주의는시장기반이기때문에무엇을생산할지를수요와공급메커니즘이결정합니다. 코뮌주의경제처럼중앙계획가가개입할필요가없습니다. 하지만상호주의의수요·공급메커니즘은자본주의나국가사회주의가실패한제조의전체비용을—특히생태적비용—가격에포함하도록설계되어있습니다. 그리고자본주의와달리, 상호주의경제의수요·공급메커니즘은국가나기업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국가나대기업에의한지속적조작을받지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여기에아나르코-생디칼리즘 (anarcho-syndicalism) 의요소를도입하는것도가치있다고봅니다. 저는산업전반을아우르는노동자운영과직접민주주의기반의노동조직이교육과자격인증을담당하고, 최선의관행과안전규정을수립하며, 새로운기술이개발될때그사용법을교육하는아이디어를좋아합니다. 이러한신디케이트 (syndicate) 는각분야의발전을위해노력하는과학자와연구자들에게전용자금을제공할수도있고, 신규사업과공공사업을위한신용조합의후원자역할도할수있습니다.

이것이진짜사회주의인가?

일부사람들은"시장"이라는단어를듣자마자즉시"그건사회주의가아니다!"라고말합니다. 수십년동안의냉전선전이미국인들에게사회주의는곧"정부가무엇인가를한다"라는뜻으로주입해왔기때문입니다. 솔직히말해서, 어리석은일입니다.

사실, 상호주의는마르크스주의나아나키즘적-코뮤니즘보다더오래된사회주의학파입니다. 그핵심원칙은"아나키즘"을사상적체계로처음만들어낸푸르동이발전시켰습니다. 아나키즘적-코뮌주의는그보다나중에, 바쿠닌(Bakunin) 과크로포트킨이마르크스의"순수코뮌주의"를푸르동의국가로부터해방된사회이상에접목하려하면서생겨났습니다. 물론이들은마르크스의권위주의적변화이론은거부했습니다. 그리고미국상호주의자인벤저민터커(Benjamin Tucker) 는최초의국제적사회주의조직인제 1 인터내셔널 (First International) 설립멤버이기도했습니다. 푸르동역시마르크스에게가입을초대받았지만, 마르크스의권위주의적사회주의를원치않아거절했습니다. (그리고이것때문에둘사이에갈등이있었지만.. 그건또다른이야기입니다.) 그러니결론은이렇습니다: 상호주의자들은사회주의자이며, 마르크스보다도이전부터국제사회주의운동의일부였다. 이는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그렇다면왜코뮌주의가아닌상호주의인가?

국가가경제를계획하지않는상황에서는코뮌주의는규모를확장할수없습니다. 역사속대부분의부족사회는마르크스가"원시코뮌주의 (primitive communism)"라고부른형태의사회구조를가지고있었습니다. 그러나마르크스와초기코뮌주의자들이간과한것이있었으니, 그것이바로사회적통화 (social currency) 개념입니다.

헤겔과마르크스의변증법적역사관이얼마나인종차별적이고본질적으로제국주의적인지에대한긴이야기를할수도있습니다. 원주민사회가산업자본주의나지구를파괴하고대다수를노예처럼만드는마르크스주의사회보다덜"발전된"것이아닙니다. 변증법적사고는역사발전을전제로하고, 유럽식경제·정치형태가더진보한형태라고가정하기때문에근본적으로유럽중심적이고인종차별적입니다.

다시사회적통화개념으로돌아가보겠습니다. 인류학적관점에서사회적통화란, 화폐처럼실제로교환되는물건이아니라, 상호부조에기반한작은사회 (부족, 마을등) 에서사람들이서로누가공동체를돕고누가무임승차자인지를기억하는방식을의미합니다. 무임승차자는단기적으로는용인될수있지만, 곧공동체에기여하도록재촉받습니다. 예의있는힌트로시작해서점점적극적인압박이되고, 끝끝내추방에이르기도합니다. (단, 심각한빈곤상황이아닌대부분의부족사회의증여경제에서는장애인과노인은무임승차자로취급되지않으며, 가능한범위에서기여하고공동체로부터돌봄을받습니다.) 그러나이러한사회적통화는소규모공동체에서만가능합니다. 모두가서로를알고누가얼마나기여했는지머릿속으로추적할수있을때만가능하죠. 규모가마을이나도시수준으로커지는순간, 이러한증여경제는붕괴됩니다.

그빈자리를메우기위해등장하는것이바로물리적화폐, 투표, 추장, 왕, 그리고국가입니다. 백만명이넘는도시의시민들사이의사회적통화를매순간따라가